

소아간질

황 경 태 · 강남성모병원 소아과

1. 간질이란 무엇인가

정 상적으로 깨어있거나 잠을 자는 동안에 뇌에는 미세한 전기반응이 나타나는데, 뇌 신경세포에서 갑작스런 전기에너지의 과잉방출로 인해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한 발작 증세를 보이는 것을 간질발작이라고 한다.

간질은 3분의 2가량이 20세 이전에 발병하므로 소아의 병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간질은 유전병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유전되는 경우는 극소수이다. 간질을 가진 아이는 형제, 자매가 통계적으로 보아 간질이 될 확률이 약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간질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소아의 뇌는 미숙한 상태여서 성인의 것과 달리 사소한 원인에 의해서도 쉽게 발작하는 특징이 있다. 소아에게 고열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열성경련은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5세가 넘은 소아나 성인이 전에는 없던 간질증상을 보이면 만성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뇌종양이나 혈관기형,

뇌 발달의 이상 등의 구조적 이상이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소아간질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유형의 발작성 질환과

감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간질이 아닌 질환을 간질로 오진함으로써 초래되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사회적 고통과 항경련제의 불필요한 투여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영유아기의 경련발작은 양상이 다양하고 진성간질이 아닌 유사발작이 많아서 감별을 해야 한다. 또한 간질에는 여러 가지 형이 있기 때문에 간질발작인지 모르고 지나는 수가 많다.

2. 간질을 진단하려면

간질진단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세한 병력을 조사하



는 것이다. 우선 환자의 발작을 목격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서 발작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일어났는지, 얼마동안 지속됐는지, 의식장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어 뇌파검사를 시행, 발작증상이 정말로 간질발작에 의한 것인지, 다른 질환에 의한 유사발작인지를 감별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간질이 의심되면 수면, 광자극, 과호흡 등에 의한 부활뇌파 검사를 시행한다. 이때 90% 이상의 환자에서 이상 뇌파를 관찰할 수 있다.

만약 발작이 있는 환자에

서 간질성 이상파가 증명되면 확실한 간질로 진단되며, 발작형의 분류와 함께 적절한 항경련제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간질병소의 크기나 심한 정도의 예측도 가능하다.

간질발작은 뇌종양,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뇌 감염증, 선천성 뇌발달 이상 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머리 부위에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뇌의 미세한 구조변화를 알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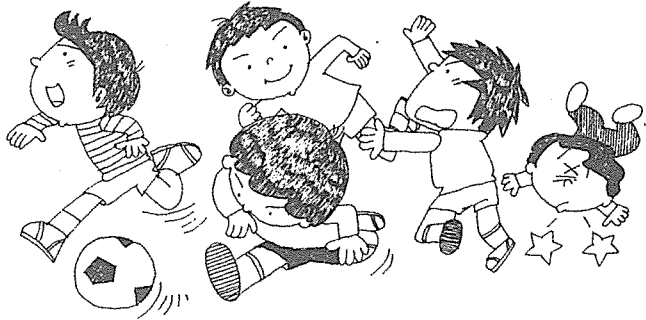
3. 간질은 완치 가능

소아간질은 항경련제 치료로 발작 증상을 조절하고 마비증상이 올 때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 신체증상치료를 한다.

성격장애를 동반한 경우는 정신증상 치료를 하며 장기간 항경련제 치료를 했는데도 발작이 계속되는 난치성 간질의 경우 외과적 수술로 병소부위를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아간질은 항경련제 치료로 8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항경련제의 치료효과는 일찍 알려졌으나 약물의 용량이나 부작용은 환자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치료란 있을 수 없고 의사의 경험이 치료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항경련제 투약으로 발작이



억제되어,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투약약물이 적정용량인지를 감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혈중농도를 측정하고 뇌파검사를 실시, 치료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항경련제는 간질발작이 3년 이상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수면부족이나 과로 등은 간질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생활리듬을 유지토록 도와줘야 한다.

4. 소아간질환자의 주의 사항

1) 아이가 갑자기 경련을 하면

환자 주위에 있는 날카로운 물건을 치우고 딱 끼는 옷(특히 목주위)은 단추를 풀어 느슨하게 하거나 벗긴다. 찬물을 끼얹거나 따귀를 때리거나 흔들어서 경련을 멈추려 하지 말아야 하며, 경련도중에는 약물이나 기타 다른 것을 먹여서는 안된다.

혀나 입술을 깨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물건보다는 나무젓가락에 수

건을 감아서 입에 물리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호흡을 원활히 시켜주기 위해서는 일단 손으로 아래턱을 위로 강하게 밀어 올려 기도를 확보하면서 경련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며 15분 이상 지속되거나 연이어 계속하면 바로 병원으로 데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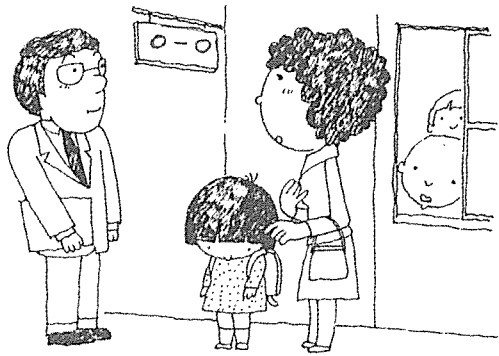
2) 예방주사

예방주사를 맞으면 열이 발생, 경련이 일어나기 쉽다. 부작용으로 경련발작 등 뇌장애를 초래하는 예방주사도 있다.

따라서 간질 경련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뇌염, 독감, DPT, 홍역 등의 예방주사는 피해야 한다. 그러나 BCG나 간염예방주사는 맞춰도 된다.

3) 조심해야 할 음식

간질환자는 가족중의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기초적이고 잘 조화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 특히 발육이 한참 활발한 시기에 있는 소아는 몸이 작는데 비해 많은 영양소의 섭취가 필



요하므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간질환자가 삼가해야 할 음료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알콜류, 커피, 홍차, 콜라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 간식으로 선호되는 스낵, 과일, 우유, 요구르트 등을 많이 먹으면 식사를 소홀히 하게 되므로 간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의 10~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목욕할 때의 주의점

목욕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기분전환을 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내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간질 환자는 좁은 탕 안에서 발작을 일으켜 물에 가라앉아 질식하는 일차적 사고 또는 욕조나 수도꼭지 등에 머리를 부딪혀 일어나는 이차적 사고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

때로는 더운 물에 의한 피부 자극이 원인이 되어 경련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5) 어떤 운동이 좋을 까

실제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활동하는 동안에 경련이 덜 일어난다.

어떤 의사

들은 만약 경련이, 심한 운동과 관련되어 나타나면 그것은 운동을 하는 동안보다는 운동 후 휴식을 취할 때 더욱 잘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간질아동은 축구나 하이킹보다는 테니스나 조깅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경련발작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혼자 수영하면 위험하다.

또한 태권도, 권투, 유도 등 머리에 충격을 받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외출·여행을 할 때

현재 발작이 항경련제 복용으로 억제되어 있는 경우는 외출이나 여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되도록 혼자 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처음 가는 곳은 마음의 부담이 크고 잘 모르는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므로 긴장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면부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규칙적인

식사와 약 먹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7) 학교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

간질에 대한 사회(학교, 친구 등)의 오해와 편견은 아직 뿌리깊게 남아 있다. 체육, 소풍 등의 학교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든가 특별히 다루어지는 어린이도 적지 않다.

발작이 있으면 주위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준다거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학교활동에서 소외당할 수도 있으며, 친구들이 놀리고 괴롭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른 친구의 태도는 담임 선생님이나 부모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나 부모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

8) TV나 전자게임은

TV 화면의 광자극에 의한 발작은 TV를 시청할 때 보호안경을 쓴다든지, 화면과의 거리를 2.5M 이상 두고 시청한다든지, 잘 조명된 방에서 시청한다든지, 채널스 위치를 돌릴 때 리모콘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다.

오랫동안 오락실에서 전자 게임을 하는 것은 광자극 이외에 부수적으로 동반되는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 수면부족, 저혈당증 등도 발작을 일으키는 유인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㉔